



2002년
11월 15일
제 51호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개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한국은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1998년 9월 15일 창간 발행인 윤철중 http://www.holycc.org Fax.033)257-1260 Tel.033)256-1260 춘천시 효자2동 373-90 (☎200-091)

춘천 직장선교연합회 정오예배 10년 감사

- 매월 말 정오예배, 동부장로교회 지원 -
- 초교와 교회 목사 직장복음화 위해 협력 -

춘천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박상운 장로)는 정오예배위원회(위원장 진성용 권사) 주관으로 45개 직장선교회가 연합하여 차례로 사회, 안내, 대표기도,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

매월 마지막 화요일 12시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미도파복화점 앞을 가느라면 부지런히 발걸음을 계속하여 동부교회로 모이는 직장인들을 만날 수 있다. 직장인 정오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 직장에서 모이는 직장선교회들이다. 한달에 한번 드리는 직장인 정오예배는 각처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예배를 드린 후, 식사를 마치고 1시에 다시 직장까지 복귀해야 하는 정오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 이렇게 35분에 끝나는 짧은 예배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어느 예배보다 진지하고 은혜스럽다. 안내와 기도, 특별찬양 등 예배순서는 각 선교회에서 돌아가며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시내교회 목사님들께서 설교말씀을 전해 주신다. 직장인 정오예배는 우리 직장인들만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시간이며 한달에 한번 직장선교회원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만남의 시간이다. 또 믿지 않는 동료들을 위하여 예배의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직장인 정오예배를 시작한 것이 었게 같은데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이렇게 오랜기간 동안 동부교회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하여 예배장소와 음식을 제공하여 줄으로써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정오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장인 정오예배는 서울에서는 이미 몇몇 교회들이 교회 주변에 직장인들을 위한 선교를 목적으로 드리고 있었으며 춘천에서는 처음으로 동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임신영 목사님께서 제의 하심으로 당시 직장선교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조충환 장로님(현 성서본부 사무총장 목사님)때 시작된 것이다. 정오예배가 시작되면서 어려움도 있었다. 동부교회가 부흥되면서 새로이 성전건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예배 후 식사할 장소가 없어 식탁대신 신문지를 깔아 놓고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어느 때는

국수로 어느 때는 빵으로 식사를 대신하기도 했다. 그토록 어려운 교회건축 중에도 중단하지 않고 직장인들을 위하여 예배의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동부교회에 우리 직장선교회원들은 큰 감동을 받았으며 모일 때 마다 동부교회 성전건축을 위하여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아름다운 성전이 하루속히 건축되어 지역사회에 보다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동부교회측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예배에 참석해 주며 식사해 주는 직장선교회원들을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제 돌이켜 보니 지난 10년이 너무도 감사하여 오는



군복음화 찬양 선교대회 개최

- "성령이 불타는 군대(Army On Fire)" -

군의 복음화를 위해 청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군 복음화 찬양선교대회에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전국에서 군생활을 위해 이곳 춘천에 모인 형제들이 이 대회를 통해 작은 복음의 불을 가지고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 불꽃이 되어 그 불이 큰 부흥을 일으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음악에 많이 접한 세대의 군형제들이 그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군 생활의 쉼과 때를 말끔히 씻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오는 12월 14일(토) 오후 3시부터 석사강교회 본당에서 군인 형제들을 위한 찬양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교회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군 찬양 선교대회를 위해

후원 및 협찬이 원하는 교회와 단체들의 연락을 바란다. (신청 및 문의는 HP.019-433-0002 강현숙 / ☎261-6823 석사강교회 사무실)
스일 시: 2002년 12월 14일(토) 오후 3시-오후 9시(총 6시간 예정) △행사내용: 리허설-식사-예배-대회 △장소: 춘천석사강교회 본당
△참가비: 1-25인: 2만원 / 26인 이상: 3만원 △예상인원: 대회참가 군인 400여명 / 관객 300여명 / 행사관계자 50여명 △시 상: 참가한 모든 팀에게 트로피와 부상 수여 등 다양한 시상 / 행운권 추첨 △주 관: 석사교회 음악부 △주 회: 빛으로찬양단 △후원 및 협찬: 비광사(군용물임제) 춘천기독교대학 △장 소: 춘천석사강교회 본당
△주최: CBS춘천방송 군선교연합회 춘천성서화운동본부 외 다수

감리교 동부연회 신임감독 권오서 목사 선출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린 제25회 감리교 총회에서는 9개 연회 감독선거에 이어 신임 감독직을 선출하였다. 둘째날 오후 감도회장 선거에서는 서울연회 김진호 목사와 서울남연회 고수철 목사가 3차결선 투표까지 집전을 벌였으나 48표차로 김진호 목사가 감독직에 당선되었으며 각 연회별 선거는 순조롭게 치러졌다. ▲서울연회 김진호감독(도봉교회) ▲서울남연회 고수철감독(혹성동계교회) ▲중부연회 전양철감독(인천장동교회) ▲경기연회 한창호감독(명덕사정교회) ▲중앙연회 배정길감독(여주중앙교회)

▲동부연회 권오서감독(춘천중앙교회) ▲충북연회 소하준감독(충주제일교회) ▲남부연회 이종현감독(대전갈마교회) ▲충청연회 조성원감독(문포교회) ▲상남연회 오세창감독(군산신광교회) 동부연회 권오서 감독은 전국 10개 연회 감독 중 최연소를 기록했다. 한편 젊은 신임감독을 맞게 된 동부연회는 앞으로 시대주류와 국제감각에 앞맞는 연회로 획기적인 변화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부연회 제12대 감독에 당선된 권오서 감독의 취임식은 지난 11월 4일 중앙교회에서 가졌다.



이범찬 안수집사 장로장립 축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반포교회(김영규 담임 목사)는 본 교회에서 출성봉사로 타

사역에 동참하여 전동대 장로(당시 춘천지점장) 양인평 장로(당시 춘천지점원장)와 함께 성사화를 위한 홀를 성립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지금도 춘천성서신문에 고정칼럼을 쓰는 등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때때로 같은 없지 않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장로직에 부끄럼이 없도록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세계선교의 밤 연 대학교수 선교연합회

강원대학 교수선교회(회장 신성균)는 11월 7일 오후 6시 30분 동대학 '실사구시관'에서 춘천지역 대학교수연합회와 대학교수선교회, 성서화기도모임과 함께 "세계선교의 밤"을 가졌다. 초청강

사 김성숙교수(충신대 선교대학원 교수)의 강연은 세계선교의 긴급성과 한국대학생, 교회 성도들의 동참 필요성을 깨닫게 했으며 도전심을 일으켰다.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담임목사)는 만천성전에 교육관을 원공하고 김기대 목사를 초청, 감사 대 성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홍준원 안수집사)

현대 방앗간 기름집

◆ 각종 맛살떡 · 구름떡 전문 ◆

대표 강동구장로
(춘천동부장로교회)

TEL. 033)251-5078 / 256-5088

(매주마다 열립니다)

삼양건재 닛시 리노베이션

○Renovation ○Remodeling
○Renewal ○Reform ○Interior

대표 이승주 권사
(춘천중앙감리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685-13

TEL.033)251-4001 FAX.033)251-0252 H.P.017-250-2531

국내 최고의 육질 최고의 맛!
최저의 가격!

이러! 생고기숯불갈비 뷔페

대표 윤기원 · 유주연
(춘천서로사랑장로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52-7
TEL. 033)255-9249 / 255-9250
HP. 011-371-6770
(이러뷔페 춘천제인사업본부 체인점 문의)

일본선교를 위한 제언[1]



황병호 교수

강원대학교 IVF 이사
춘천제일장로교회 장로

일본의 선교학자 데쓰나오 야마모리 박사가 말했듯이 앞으로 21세기에는 전 세계 비그리스도인의 83%가 전통적인 선교사에게 문을 닫는 나라에 거하게 되리라는 것은 단기선교와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을 충분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데쓰나오, 1999). 일본의 선교적 상황은 교회 성장학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복음에 대한 수용성(receptivity)이 낮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선교사가 무려 2,500명이 넘으며 수많은 기독교 단체와 학교들이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의 실제적 열매는 적은 편이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일본으로 밀려든 선교사의 수가 무려 4,000명이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서양 선교사들은 많이 철수하였고 그 빈자리에 한국 선교사들이 자리를 메워서 선교하고 있다. 전호진 박사(1998a)는 일

하기 위하여 더 우수한 학문과 세련된 지성미를 가지고 일본의 언어, 종교, 문화에서 접촉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면에는 모든 선교 전략의 기초가 되는 구령의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는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토착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기독교를 외래종교 혹은 서양종교로 간주한다. 이 토착화의 문제는 16세기 일본에서 카톨릭의 부흥 이후 당시 지배계층으로부터 핍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토착화의 모범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상황화(contextualization), 그리고 토착화(indigenization)의 모범이 된다(박영지, 1994). 사람이 출현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에게 먼저(요일 1:19) 찾아오셨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고(마 21:18), 슬픔을 느끼시며(요 11:25) 죽으시기까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인간과 더불어 사셨던 것이다. 일본에서 토착화 선교전략의 중요성은 우선 일본의 신흥종교에서 교회를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 불교계의 신흥종교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많은 신자를 확보한 것은 그들의 토착화 전략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동정 루터신학 대학에서 교수 선교사로 일한 케네스 데일은 임정교회성회(正統協會) 성장의 비결은 바로 토착화를 잘 활용

한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독교 선교에도 이상 기독교가 서양종교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선교에 있어서 토착화를 위해 -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 간혹 한국선교사들이 갖는 교세적, 교권적 우월성을 분명히 배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 신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성경을 너무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전호진 박사는 말한다(전호진, 1998a). 셋째로는 단기선교 및 전문인 선교로서 분명히 사역 경험 및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다. 선교는 영적전쟁이기도 한 전쟁에는 무기가 필수적이다. 화기와 장비가 우수하고 잘 훈련된 군대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선교도 분명히 사역기술이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문서사역이나(편지, 전도지, 전도비디오 등), 찬양사역(피아노, 기타, 찬양대), 제자훈련사역(일대일, 큐티, 성경공부), 문화사역(교양강좌, 감성 담그기, 영어, 한국 어강좌), 팀사역(지도자훈련, 공동체 훈련, 교회협력), 말씀사역(예배, 심방, 치유[특히 정신적], 전도)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든 나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이다(김용국, 1999).

성서기도회 메시지

간절한 기도는 위기를 호기로 만든다

김은선 목사 / 꿈이있는 성령교회

삶 속에서 온갖 일을 만난다. 어렵고 좋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면 기쁨의 조건이 된다. 달의 죽음에서 예수님을 찾아 간 청한 아이로. ①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 그는 포기하지 않는 간절으로 딸을 살리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개척교회와 막대한 주의를 만나 쫓겨나는 위기에 처했다. 가진 것은 1,300만원인데 태일이 부족했다. 그 교회가 40일 기도해 들어갔다. 전세방도 불가능한데 교회부지 130평이 생겼다.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 응답이었다. 10월말 헌당예배를 드렸다.

청년 집사부부가 소망직(9급) 시험을 앞두고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했다. 필기시험엔 합격했으나 두리란 운동으로 다리가 아파 걸기가 불편했다. 1km 달리는 체력 실기시험에서 탈락했다. 그는 실망하고 교회출석을 중단했으면 성도들의 권유로 어렵게 다시 출석했다.

얼마 후 다른 소방서 8급직에 합격했다. 더 좋은 것은 새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다. ②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 비보를 접할 수 있다. 아이로의 간절함을 받고 시고 도중에 열두해 혈루증 환자와 대화로 시간이 늦었고 회당장의 딸은 죽었다. 제자들은 이제 딸은 죽었으니 조용히 할 것을 종용했다. 대개의 경우 이런 때 원망,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회당장은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딸을 건강한 몸으로 살리셨다. ③ 두려워 말고 믿고 기도하라: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신 예수님은 죽은 딸을 일으키셨고 딸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가정은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쳤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이 더 귀하다.

우리는 너무나 육의 삶에 치중하고 있다.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도구가 되는 영적인 삶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는 위기를 호기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다.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에게 누가 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줄으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자라야 한다' 하고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여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금이나'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줄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하고 말한다. 눈먼 자들이여 무엇이 더 좋하겠나?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표준새벽의 마태복을 23장 말씀]

Manna

갈음의 날

"갈음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새겨 놓으신 법칙입니다. 마이아박사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구조에 비추어 생가해 보았을 때 악인은 분명히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조상들이 바람을 일으키면 그 자녀들은 회오리바람을 거두게 된다. 한 세대가 열심히 가라지를 뿌려 놓으면 다음 세대는 그것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 반드시 금벌한 갈음의 날이 오고야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못습리니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못습리니는 자신이 만든 소용돌이속에 자신이 빠져 버렸다. 그는 자신이 붙여놓은 전쟁의 불꽃에 자신이 타버렸다. 그와 그의 국민들은 에티오피아와 알바니아에 가해진 재확립을 지금 스스로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처칠이 이와같은 말을 하기 수년전엔 랄프 월도 에머슨은 그의 「내성」이라

른 형벌은 같은 즐거이에서 자라난다. 형벌이라는 열매는 쾌락의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그 속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 수단과 목표, 씨앗과 열매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원인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수단속에, 열매는 씨앗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피터 건디/sammool 발췌)

동풍낙생 (冬風落生)



정경호 목사
춘천CCC 대표

추풍낙엽(秋風落葉)이란 말이 있다. 이는 가을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진다 뜻이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잎은 대부분 붉게, 노랗게 혹은 낙엽들이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겨울 날씨처럼 추워져서 가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할 때만 온풍이 떨어졌다. 이런 최근 자연 현상을 보면서 새로운 말 동풍낙생(冬風落生)을 생각해 본다. 한국의 가을은 더 없이 높고 푸르다. 그래서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 한다. 심산유곡(深山幽谷)이 많은 강원도의 가을은 일상생활에

지진 수많은 사람들의 보금자리 안식처가 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등산복 차림의 단풍놀이 관광객들이 즐비하다. 나의 생애에도 언제 갑자기 추수를 제촉하는 추풍이 불어야 할 때 동풍이 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설악산 대성봉과 철원에 벌써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겨울이 되면 비행기는 고단한 생활이 되고 개비는 여름에 부치려던 준비한 것으로 따뜻한 가을을 보낼 수 있다. 이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때 아닌 가을에 황사가 서울 하늘을 덮었다고 한다. 황사가 불어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가을에 나타난 황사가 뉴스가 되고 있다. 문득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가 생각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 맛을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있는 정경이 필요함을 느낀다. 2002년 한해를 끝낼 보름 남겨두고 계절의 변화 속에 흘러가는 세월을 반추하며 춘천과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본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생각해 본다. 데이비드 보시는 그의 책 "변화하고 있는 선교"에서 선교의 시대적 패러다임을 서술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라고 했다. 복음전파가 자문화전에서 이루어질 때는 전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타문화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선교라고 한다. 기독교역사관은 창조에서 종말로 직선적으로 흘러간다. 역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여금 복음전도의 기회를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한다. 둘째는 구체적인 춘천 성교회 운동과 사역의 확산이다.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는 협력하여 성교회 운동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성교회 운동은 총체적인 기독교사역이라 볼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주의 일꾼들이 분신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이 끊임없이

개방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성교회 사역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만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의 대 사죄적 사역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부여 하셨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사랑의 실천과 봉사가 더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참된 강진은 환란가운데 있는 교인과 과부를 돌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골 1:27)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현실이 되고 있다. 언제 동풍(冬風)이 불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떨어지기 전에 할 일을 해야 한다. 흠이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춘천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천의 추억에 있어 감성 속에 있을 여유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가 악하므로 세월을 아가라 경고하고 있다. (렘5:16)

레크리에이션

채팅과 이메일(e-mail)로 자신의 존재 확인



정진호 장로
한국가톨릭레크리에이션협회
강원지부 명예회장

사이버 스페이스에 무엇이 있을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pc통신의 초기 역사에서 그 단서를 찾아 볼 수 있을까. 온라인 채팅과 게시판 정보를 메인 메뉴로 하던 사설전지게시판 BBS 시절부터 PC통신 커뮤니케이션의 원초적인 욕구인 대화창대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초고속으로 움직여야 생존 가능한 현실공간에서 개인적 정체성이나 존재에 대한 확인 작업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욕구본반의 현대인들에게 채팅과 이메일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라고 자리잡고 있다. 자나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많은 얼마 아비는 생업현장에서 번 돈으로 고가의 컴퓨터와 좋은 교육기관에 다니게 한다. 그 자녀들은 대화 없는 부모로부터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대화상대를 손쉽게 사이버 세계에서 찾는다. 최근 통칭하고 있는 '사이버 가족'은 단적인 현실 속 하나다. "저는 18살이구요... 아빠가 정부 가지구 싶

어여... 그래요... 귀여운 남동생 두 명 있어요... 예쁜 언니나 동생 두 명 있어요... 힘들거지... 찾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었을 뿐이지... 연락만이나 주세요..."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오른 찾는 글이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처럼 아파 엄마가 누 오빠 심장이 큰 고향, 달숙까지 모인 대형 사이버 가족을 결성. '웹(패밀리의 약자)으로 모인다. 올해 들어 5년, 총 10차례의 걸쳐 결혼식을 치렀다는 10대 초등학교생들은 '결혼=게임'이라는 등식을 갖게 하는 사이버 가족의 부정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관심과 애정이 첫 번째 치료제: 또 비록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할 지라도 온라인 게임에서는 황제나 영웅으로 변신할 수 있음을 확인한 청소년들의 사이버 중독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리니지' 바람의 나라' 같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의 행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수 만개를 수 십만 원씩 들여 구입하는 것도 이 같은 환경에서 바라보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가족과 친한 가족이, 사부일체 들어오거나 집에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컴퓨터를 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사이버 중독증 초기증상에 들어갔다고 간주해도 좋다. 동포나 가족과의 만남보다 컴퓨터가 더 반가운 그에게 우선 순위가 바뀌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행위, 사이버 중독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첫 번째 치료제가 아닐까.

(2001.9 교육아당 21 82, 83쪽 김강호/장보문평론가(주)아이젠 대표서)

조남진 장로 "겨자씨의 증언"출간

- 언론계 40년 월드비전 10년, 교회와 성서운동 30년 사역담아 -



지난 10월 28일 11시 30분 순복음순천교회에서는 김주환 담임목사의 인도로 조남진 장로 교회(古橋)와 "겨자씨의 증언"출간을 기념해 언론계 인사들과 김진선 도지사 김병두 전 교육감을 비롯한 교제지도자와 가족, 친지, 성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하나

있고 한국교회비전 부회장, 강원도사회복지연합회장, 춘천성서본부 초대본부장, 춘천교회로컬리 초대회장, 춘천성서신문 초대 발행인, 순복음순천교회 장로직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전국로컬리클럽 부회장으로 전국 및 세계 도시성서회 운동을 이끌고 있다. 그의 삶 전체가 타의 귀감이 되고 있으나 특히 감동을 주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개척교회의 목회를 적극 도와 대교회로 성장시키는데 헌신했다는 것이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불자가 되어 사찰을 짓고 예수구원 막에서 회회를 맞았을 것이다. 그는 불경에 심취, 신문사 간부직을 이용하여 인도에

서 불상을 들여 오기로 하고 목재장시인의 지원을 받아 사찰 건축을 추진했다. 갑자기 악성 설사병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으나 낫지 않았다. 주일 아침, 병실을 찾아와 들려주는 크리스찬들의 찬송가 소리에 죽었던 믿음이 되살아났으며 퇴원 후 서대문순복음교회 박승우 전도사를 방문한 후 귀가했으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몇일 고생하다가 70년 5월 10일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조용기 목사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어느날 갑작스레 나타나 그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없었던. 온 몸이 감전된 것처럼 허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오고

눈물과 땅으로 뒤덮여 되었으며 병은 앓은 듯 나았다. 장자녀 내는 불을 켜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얼마동안 주일예배는 사울교회에서 드렸으며 72년 초 젊은 전도사(김주환 목사)의 방문을 받고 당시 개척교회를 도와 30여년간 혼신을 다하다가 은퇴하였다. 이제 그는 사회 복지 사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교회 내 노인복지회를 위해 여성을 봉사할 계획이며 교회와 함께 춘천 도성의 성서회, 전 시민 구원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사진 제공: 홍준원 안수집사



시민의 마음

공직기강과 총리인준



정국평 수평자전, 강원도의회 전문위원

정다한 말은 크게는 국가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로, 작게는 조직의 일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같다. 그래서 공직기강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공직기강이 곧 국가기강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공직기강이 메스컴의 도마에 또 올랐다. 기강이 풀어진 상태가 많이 아니라고 한다. 원래 공직기강은 보통 정권초기나 말기에 의해적으로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이번엔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의 특수조직에서까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다. 마치 나라 전체가 조여놓은 나사가 풀린 듯 어처구니없는 사건사고가 지면과 화면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는 그 조직과 전 공직자에 대한 책임자들의 단속하는 모습도 비쳐 주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사안 보도에서는 언제나 고쳐칠까 하는 그저 답답한 느낌을 받았지만 책임자가 나서서 단속하는 모습에서는 뭔가 달갑지 않은 공허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면 행정공무원의 실질적 총수는 국무총리이다. 그런

간증

길고 지루한터널 그곳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



김명연 안수집사 (강원도청직장선교회)

공무원생활 34년여를 마감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신청을 한 후에도 지난 10월 15일부터 장기휴가에 들어갔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신(83년세례)후 그 아버지를 잘 모른 채 직장생활과 세상일을 더 즐기며 주일교인으로 지나다가 87년 가족(아내)의 장기금식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89년부터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교회생활을 감당하고 직장생활 등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91년부터는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95년도부터는 춘천직장선교회협의회 성서화 추진위원장의 임무를 맡고 그 당시 평신도 운동의 주체인 기관장기도모임, 춘천성서화운동추진본부, 춘천지역기독교연합회 창립 등 춘천지역 복음화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98년도에는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협의회장의 중책을 맡아 사역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게 되었고 연합사역의 중요성과 지난날 잘못 살아 온 생활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귀하게 쓰시는지를 다시금 알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장로회의 기도모임은 나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며 성서화기도모임(매주 목요일 저녁에 시행)등 성서화연합사역과 직장선교활동은 나의 신앙인생의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 직장을 조금 일찍 정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에서 직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어 실제 삶이 아닌 2년(00-01)동안 강원도청직장선교회장직을 부여 받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직장생활에서 자기시간에는 자유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직책에 대하여 기관장(도지사)을 대신해야 하는 어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나의 선교활동의 시간을 점점 빼앗기게 되었고 그 결과로는 기독교인의 기본 생활인 주일성수 등 교회생활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연합사역인 직장선교모임, 성서화기도모임에 불참 횟수가 한뼘, 두뼘, 한달, 두달로 늘어났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외향성 아내가 목회자이며 장남이 신학자인 기독교인 가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나도 장자 직장을 그만두면 가족의 교회사역을 적극 도와 많은 피로자들이 여성을 할일 없이 걱정하는 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준비하며 지내고 있는데 사안은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일을 위해 온전하게 쓰일 만개 그 날 두지는 않았다. 2000년 4월 사안은 제일 먼저 우리 부부관계를 괴롭혔고 그 결과 지금은 별자상까지 내뿜었다. 지난 2년간 동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담시고 노회장 목사님, 신학장님

등과 상담하면서 사회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왔지만 장시간 달라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약되어 가는 현상이 되었고 직장에서는 2000년 봄철 동맹한 대형산불피해 산발했고, 금년 봄철의 산발한 등으로 실심이 지니는 이 문제로 인하여 피로되고 있는 나를 위로한다는 동료들을 따라 노회방에서도 기보는 등 실직자에게 가지 이르게 되었다. 별거생활(4개월) 이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 새벽, 주일, 삼일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직장생활과 아시는 분들에게는 외향성으로 수선제가(修身齊家)를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매일같이 심령에 찾아오는 공허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심리적 갈등이 지난 9월 1일 우리 강원도 동맹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관측상상 유례없는 대풍 무사시에 의한 폭우가 쏟아져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방대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이 가족이나 직장일로 하나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항상 죄책감이 있어 있던 나로서는 더 이상 직장의 일 수해! 복구, 산발방지 등 재난업무로 기독교인의 기본생활에 불충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장을 조금 빨리(3-9개월) 떠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통하여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고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하여 결정 한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위해 마련된 3개월간의 장기휴가제도는 장자 직장을 떠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볼 때 파격 34년 동안 정해진 휴가는 물론이고 명예퇴직도 가족과 함께 오붓하

게 지내거나 제대로 쉬어보지 못한 경험 등 어렸을 때부터 쌓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고 싶은 마음으로 무조건 쉬고 싶었고 일그러진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날 생각으로 기도원에 가고 싶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바꾸어 금식기도 일정을 앞당겼다. 당초 계획은 휴가 첫날인 10월 15일부터 제일 먼저 기도원에 갈 작정이었지만 10월 16일에 경기도 의정부에 갈 약속이 있어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21일로 미루었던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에 다녀온 다음날 기도원에 가야겠다는 조금의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10월 18일 오전 10시경에 갑자기 머리가 멍하니 왼쪽눈이 심한 충혈로 점멸해 변했다.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심혈관이 터졌는데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가끔 있는 현상이라고 하시면서 먹는 약을 처방하려고 했지만 나는 내일부터 금식작정을 했기 때문에 먹는 약은 위장장애가 있어 먹을 수 없다고 하여 눈에 넣는 약을 선택했다. 10월 19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목욕을 한 후 10시경에 집을 떠나 강남금식기도원에 도착하여 등록하고 11시 오전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전에 들어가 무릎 꿇자마자 지금까지 겪은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마음을 울렸고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그 순간부터 내 입술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가 되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소서!"로 바뀌었다. 그렇다 진심하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껏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할 테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다. (다름으로 계속 됩니다))

성서만평



김준배

**** 돌이켜 반성하고 묵상하는 11월입니다 ****

초혼 · 재혼 · 교포결혼 · 국제결혼

"우리 결혼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코리아 (주)

기독교가정전담결혼정보회사

☎ 033-242-2121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내)

www.cymkorea.com / E-mail: cym2002kr@hanmail

☎ 모니터링팀

- 기쁨과 사랑의 이삭
● 26세 이상 45세 미만 남·여
● 전문상담
● 기쁨과 사랑의 이삭
● 상담팀 운영팀

- 자택에서 1
● 주민등록번호 1
● 평일시간 2
● 약식계약 1
● 내시요청